

## 고난 주간 화요일 아침

### 본문 - 매일성경 마가복음 14장 43-52절

#### #1. 나쁜 선택

**45절**, "...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43절에는 그의 이름 '유다'로 기록되어 있는 데,

44절에서는 그의 이름 대신 "예수를 파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saints)' 또는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훗날 어떤 자로 기록될까요?

유다는 나쁜 선택을 한 자였습니다.

#### #2. 어리석은 선택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을 빼어 베어버립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 26:52)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수히 잡혀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49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맞서신 겁니다.

칼과 분노로 맞서는 자는 결국 칼과 분노로 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맞서는 자는 결국 말씀이 이뤄지게 합니다.

베드로는 칼로 맞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 #3. 비겁한 선택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도망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50절)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마저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한 제자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52절)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38절)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자만이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자는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도망갑니다.

제자들은 도망이라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 #4.

나쁜 선택을 한 제자는 결국 또 다른 나쁜 선택을 함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비겁한 선택을 한 제자들은,

훗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썩어지는 밀알들이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나쁜 선택을 한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과 비겁한 선택을 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된 것은,

부활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이런 희망으로 기다려 봅시다.

나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비겁한 선택을 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